

6 뉴스

과거를 통한 현대 알기 『역사와 현대 건축의 만남』

정다연 기자 ekdusgood@knu.ac.kr

세계의 역사적 건물과 현대 건물의 조화를 전하는 『역사와 현대 건축의 만남』을 이관석 건축학과 교수가 평냈다.

저자는 '역사'와 '현대 건축'이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현대 건축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념물, 건축물과 시선을 교류한다. 시선을 교류하는 것은 그 시대를 같이 향유하고 조화를 이루며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를 지닌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신축 '뮤지엄'이 조화를 이루 수 있는 이유를 문화·정치·경

제적으로 알려준다. 우리는 문득 '이 건물은 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생각하곤 한다. 그 이유를 저자는 건물에 얹힌 역사를 통해 이야기 해준다.

한 건물에 깃들어 있는 역사와 정신은 깊다. 여기 "신성한 섬, 프랑스의 영혼을 꽂파우는 우리 민족의 요람, 그 정신이 깃든 곳"이라고 묘사된 건물이 있다. 건물의 입구는 두 개의 콘크리트 블록으로 입구를 만들어 한 사람이 들어가기에도 좁은 건물이다. 건축가 팽귀송은 좁고 긴 지하 공간을 통해 강제수용소가 유발하는 폐소공포증을 느끼길 바라면서 지었다고 한다. 좁은 입구를

들어간 뒤엔 "그들은 땅속으로 내려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강제수용소에서 숨진, 밤과 안개 속에서 잠든 20만 명의 프랑스 추방자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며"라는 멋진 문구가 따라온다. 안타까운 역사를 지닌 제2차 세계대전 강제이송 희생자 기념관이다. 기념관은 인파로 북적이는 노트르담 대성당 뒤편에 있지만 엄숙하다. 저자는 가장 불비는 곳에 있음에도 군중으로부터의 피난처로서 최근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사건 중 하나를 강렬하게 상기 시킨다고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강제이송 희생자 기념관은 겹양의 자세로 지하로 내려가며 세계문화유산과 어울릴 수 있었다. 저자는 드러나는 형태가 없 다시피 하거나 간소하다고 해서 존재감이 사라지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한다. 건축물 간 겹양의 자세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역사와 현대 건축의 만남』

기념관과 미술관이 겹양의 자세를 취하듯, 주변 건축물 상당수는 모두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전한다. 겹양(謙讓), 낮춤을 통한 존중. 동조(同調), 닮음으로 보조를 맞춘. 대비(對比), 근대성과의 조화. 우러러보며 존중. 어쩌면 세계의 건축물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끝으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역사와 현대 건축의 만남에 더 많은 방법론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건축문화유산이 시간과 공간 모두에서 현재와 단절되어 고립되지 않고 다가서는 젊은 이웃에 영감과 활력을 주고받아 싱싱한 문화 생명체로 되살아나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힘이 되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다시금,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저자의 말이 떠오른다.

대학농구 3년 만에 홈경기

최예령 기자 herry2020@knu.ac.kr

지난 31일, '2022 KUSF 대학농구 U-리그'에서 우리학교 농구부가 3년 만에 홈경기를 치렀다.

대학농구리그는 이번 시즌부터 '위드 코로나'에 맞춰 예전 방식대로 진행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여파로 대학농구리그는 서로의 홈 경기장이 아닌 제3의 경기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됐다. 그러나 이번 시즌부터는 홈팀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다시 운영된다. 두 차례 나눠서 운영됐던 리그도 한 번에 치러질 예정이다. 단, 관중 입장 여부는 각 대학의 운영지침에 따르겠다는 것이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의 방침이다. 우리학교 체육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무관중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31일 국제캠퍼스 선승관에서 이번 시즌 첫 홈경기가 열렸다. 이날 고려대와의 경기에서 우리학교는 65대 87로 패배했다. 경기 중 고찬혁(스포츠지도학 2020) 선수가 무려 21점을 득점하고, 박민채(스포츠지도학 2019) 선수도 13득점과 11어시스트를



지난 31일, 우리학교 농구부가 3년 만에 홈경기를 치렀다.

(사진=최예령 기자)

기록했지만 점수 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이번 시즌에 대해 김현국 감독은 "리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여수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며 선수들의 기량을 끌어올렸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설 명절 이후 1~2달 동안 훈련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훈련 공백기가 있다 보니 선수들의 부상도 많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 감독은 "1차 목표는 플레이오프에 가는 것이며, 그 후 결승까지 가는 것이 목표"라며 "매 경기가 소중하고, 상대 팀이 어디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 개인뿐만 아니라 팀의 목표 또한 성취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장 박민채(스포츠지도학과 2019) 선수는 "동계훈련을 통해 준비한 것도 많고 선수 구성 또한 좋기 때문에 기대해 주고 응원해 주신 만큼 보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올 시즌 포부를 밝혔다. 이날 경기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고찬혁(스포츠지도학과 2020) 선수는 "결승전에서 고려대를 다시 만난다면 반드시 이기겠다"며 "추후 부상자들도 경기를 뛰게 된다면 기대해 볼 수 있

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홈경기는 ▲4월 14일(상명대) ▲5월 3일(한양대) ▲5월 10일(동국대) ▲5월 13일(단국대) ▲5월 24일(중앙대) ▲6월 4일(명지대), 원정 경기는 ▲4월 26일(고려대) ▲5월 5일(건국대) ▲5월 19일(조선대) ▲5월 31일(연세대) ▲6월 8일(성균관대)에 예정돼 있다. 모든 경기는 '네이버 TV'와 '대학농구연맹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우리학교 배구부는 '2022 KUSF 대학배구 U-리그'에서 오는 27일 조선대와 첫 홈경기를 무관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2면 '학생자치 외국인 학생 외면'에서 이어짐

이에 대해 김호범(국제학 2018) 학생은 "총학생회 회원의 자격 요건으로 한국어 능력이 요구되지 않을뿐 아니라, 우리학교가 내세우는 화합의 가치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현실적으로 모든 언어를 통해 공지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국제대학 학생회 측은 "행정실에서 중요한 공지는 영어로 올리고 있는 상태"라며 "학생회에서도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 외국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회 차원에서도 이례적으로 외국인 학생도 처음으로 뽑았다"며 "소통을 위한 많은 노력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과대학 학생회 또한 "학생과 학생 사이 간극을 해소하고자 게시물 번역 사업을 공약으로 정하게 됐다"며 "유학생국원에 대한 충원이 완료되어 게시물 번역 사업이 구준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캠퍼스 총학 봉건우(자율전공학 2017) 회장은 자치활동에 대한 게시물 번역 여부에 대해 "번역 인력 부족과 잠재적 오역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학사 관련 공지를 비롯해 등록금 같은 부분에서는 게시물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우리학교 외국인 유학생은 총 4067명으로 국내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가장 높다.